

재외동포의



2013 5월호

포커스 : 8~9

한·미 동맹, 새로운 60년을 향해 첫발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글로벌파트너십' 큰 성과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춤 · 해학 · 풍자 어우러진 민중 예술 **탈춤**



궁중 광대들의 공연에서 시작해 민중 문화로 확장된 탈춤은 노래, 춤, 연극적 요소와 해학, 풍자 미학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동영상들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탈춤이다. 탈춤은 노래와 춤, 연극, 의상 등 여러 부문을 종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민중 예술을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하회탈춤, 봉산탈춤, 고성 오광대, 양주별산대놀이 등 종류도 다양하다. 양반의 종이지만 주인공인 말뚝이부터 승려, 일반 서민인 신발 장수, 무당, 떠돌이 한량, 문둥이, 백정, 무동, 심지어는 원숭이, 사자 등 다양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이 탈춤에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계층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음악과 춤이 가미되고 수많은 재담과 연극적인 요소 등이 어우러져 최고의 민중 예술이 됐다.

지배 계층을 공공연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탈춤은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웃음과 해학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허용된 민중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2	한국의 열	민중 예술의 종합체 탈춤
3	목차	
4	특집	새 학문으로 떠오르는 '재외동포학'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산, 대학 학과 신설 필요"
8	포커스	한·미 동맹, 새로운 60년을 향해 첫발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글로벌파트너십' 큰 성과
10	기획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업에 앞장선다" 제14회 세계한인회장대회 6월 18~21일 서울서 열려
12	화제	"차세대 동포의 모국 이해 우리가 앞장서 돕겠어요" 2기 OKF 대학생봉사단 워크숍 후끈한 열기
14	한민족공감	차대통령 재외공관장 간담회 "동포 돕는일 적극 나서라" 당부 외
16	지구촌 통신원	캐나다 최초, 한인 남녀 여야 주의원 탄생 41세 스티브 김·31세 제인 신 나란히 당선 조재용 연합뉴스 밴쿠버 통신원
18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LG CNS와 서비스 수준 협약 외
19	글로벌코리아	러 국립극장 첫 동양인 수석 객원 지휘자 노태철 국립 오케스트라 이끌고 서울공연 성황
20	한인회 탐방	애니깽 후손의 꿈이 꽃핀 멕시코한인회 멕시코 한인이민 108주년 기념식 성료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22	통신원 킬링	인생 질곡의 몸부림... 탕고의 아르헨 이해진 재외동포의창 아르헨티나 통신원
24	나의 살던 고향	역사 숨결 어린 한반도의 증원 충주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5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뒤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미 동맹 60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온 재외한인학회는 지난 3월 15일 '사단법인 설립 기념대회'를 열어 학회의 '3.0 시대'가 시작됐음을 대외에 알렸다.

새 학문으로 떠오르는 ‘재외동포학’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산, 대학 학과 신설 필요”

재외동포가 720만 명에 이르고 재외국민참정권 실시 등으로 동포사회와 모국의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재외동포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인하대, 전남대, 공주대, 경희대 등 여러 대학에서 재외동포 관련 교육 및 대학원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통해 국내 고등학교 특강과 대학 강좌를 개설했다.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해 재외한인학회, 한상연구단 등 많은 동포관련 연구단체의 노력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재외동포학 또는 디아스포라학을 대학의 학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외동포학이라는 말은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광규 교수가 오래전부터 제안해왔고, 한상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전남대 임채완 교수는 ‘디아스포라학’이란 명칭을 써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재외동포 분야를 이제는 우리 학문의 한분야로 당당히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목소리다.

어떤 연구 분야가 독립된 학문분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 목적, 방법, 필요성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국제관계학, 경영학, 행정학 등이 독립적인 학문 분과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민학, 여성학, 문화콘텐츠학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분과에 이르면, 재외동포학 또는 디아스포라학이 독립적인 학문분과 또는 대학의 학과가 된다고 해서 이상할 일은 아니다. 최우길 선문대 교수는 “재외동포 연구가 독립 학문분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학자들의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고 질적으로 향상돼야 한다”며 더불어 “교육 행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공부한 인재를 사회가 요긴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포 연구 불모지를 개척해온 연구단체들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연아마틴 캐나다 상원의원 등 동포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내에 동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동포관련 연구 단체의 오랜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인 연구단체로는 ‘재외한인학회’(회장 이진영)를 꼽을 수 있다. 학회는 1988년 이광규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이구홍 소장(해외교포문제연구소), 민관식, 조일제, 정인섭 등 몇몇 학자와 실천가가 주축이 된 연구모임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 다양한 인문, 사회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회를 유지·발전시켜왔다. 학회는 지난 3월15일 사단법인 창립기념대회를 갖고, “글로벌 재외한인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재외한인연구를 선도하는 학회로 거듭 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단장 임채완)은 한인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1990년대부터 시작했으며, 2003년부터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국내·외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계한상 네트워크와 한민족문화공동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많은 학술서적과 논문을 출판했다. 특히 33권의 총서 가운데 11권이 대한민국 학술원과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학술도서로 채택되었으며, 2007년 11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성과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에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계의 동포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이형모)은 최근까지 월 1회 포럼을 열어 다양한 동포사회 이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듭해왔다. 포럼 강사로는 재외동포 연구자 및 전문가와 해외 한인 단체 실무자를 두루 초청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각국 거주 한인사회의 이해와 네트워크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1964년에 설립해 매년 재외동포포럼을 열고 있는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를 비롯해,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인하대 ‘이주·재외동포 연구센터’ 등 대학 내 부설 연구소의 활약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남대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디아스포라학과를 2006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대학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문화학과를 최근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단의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부터 국내 청소년들의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를 돕고,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부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대학으로 확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에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관련 논문 공모전, 고등학교 및 대학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전문가를 초청해 '대학 내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재외동포교육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동국대부속여고를 시작으로 포천고(경기) 전주여고(전북), 9월 서라벌고(서울) 광양고(전남) 목포여고(전남) 풍문여고(서울), 10월 서해고(경기) 울산중앙여고(울산) 대부고(경기) 명덕외고(서울) 대정여고(제주), 11월 대영고(경북) 신일고(서울), 12월 저동고(경기) 경동고(서울) 등 지금까지 전국 6개 지역 15개 학교에서 이해교육을 실시했고, 3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올해에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대학 강좌 개설을 비롯한 대학 특강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28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과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는 한국외대 회의실에서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외대에서는 2013년도 1학기부터 '세계사와 한국'이란 강좌가 개설됐고, 2학기부터는 '세계의 한민족'이란 과목으로 명칭을 바꾸어 진행할 예정이다.

동 강좌에서는 세계사 속에서 한민족 이주 역사와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중국 조선족, 재일코리안, 미주한인 등 각국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문화 및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대학 내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 개설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대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설된 이 강좌는 국내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뿐만 아니라 동포 차세대를 직접 초청

재외동포 연구자 인터뷰

이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대학에서의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통해서 재외국민은 물론, 외국적동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재외동포 현황 조사와 연구를 통한 타당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재외동포학'을 정립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인지강화 사업을 통해 한국의 자산이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곧 모국과 재외동포가 공동발전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우선 재외동포의 이해를 돕는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 인지강화사업과 관련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에 있어 학생 논문대회 등 연구지원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장기적인 우호여론을 확산시키고, 미래 정책 결정자인 대학생들에게 재외동포와의 공동체 의식을 심화·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임영상 한국외대 교수

재외동포 관련학과 개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학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 학계에서 재외동포학을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동포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동포재단 직원들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행정일선이 교류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을 자주 열 필요가 있다.

김응기 흥익대 교수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들에 대한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그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으므로 초등·중등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모국으로 유학을 오는 동포 차세대가 중도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학교 입학 후 내·외국인 사이

해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한편, 재단 임직원이 대학을 찾아가는 특강도 올해는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김경근 재단 이사장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특강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6월까지 재단 임원들이 전국 16개 대학을 돌며 재외동포 개념과 현황, 동포사회 현안, 재외동포 재단의 역할 등을 강의한다.

논문 공모전으로 연구 저변 확대

재외동포재단은 '학위논문'으로서 재외동포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올 1월 18일에 시행된 '학위논문상'은 학술 장려금도 있어서 재외동포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격려가 되었고 새롭게 연구에 뛰어드는 등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논문공모전'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모에는 이화여대 김지영·이지영 씨 팀과 중국 칭화대 정경진·베이징대 이경진·대외경제무역대 장우영 씨 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화여대 팀은 '재외동포 의료서비스 개선방안-해외 사례를 중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2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시상식을 열어 우수 논문 5편을 시상했다. 사진 좌측부터 강주원, 강희영, 김태진, 손미경, 이정선

심으로', 중국 대학생 팀은 '재중 유학생에 대한 국내 인식 분석과 관련 제고 방안 제시'라는 제목의 논문을 각각 제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이사장은 "논문 공모전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재외동포 분야를 연구하는 전공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돼 재외동포 관련 현안들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논문에서 제기된 창의적인 의견들은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재단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창**

에서 경제인으로 방치되고 있고 장학금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포 차세대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채완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단장

지난 2005년 대학원에 디아스포라학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석사 17명, 박사 7명을 배출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글로벌 디아스포라학의 체계화, 학부 디아스포라(재외동포)학과 신설,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 영역 및 기관 확대, 교육과 연구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및 범위를 다른 민족까지 확장해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춘 글로벌 디아스포라학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재외동포학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인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인력들의 전문성도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전재호 서강대학교 전임연구원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며 모국인 '한국'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에는 언론의 보도가 충실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매스컴을 통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에 있어 과거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에 포커스를 맞춰 관련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창**

한·미 동맹, 새로운 60년을 향해 첫발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글로벌파트너십' 큰 성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월 7일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밝게 웃고 있다.

한 ·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5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위기 와중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이번 방미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을 담은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영어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사를 감동적으로 전달해 참석 의원으로부터 6차례의 기립 박수를 포함해 총 41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52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 경제수행단이 동행해 북한 위협을 계

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정상회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감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지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은 평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도 “제가 제시한 한반도 프로세스 이행을 비롯한 다각

적인 이행을 통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감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한미 동맹의 미래상은 기존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까지 함께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격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범세계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간 굳건한 동맹 재확인

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 기간 동안 한국계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 한반도의 정치·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5월 6일에는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5월 7일에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한국형 발전모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한국 경제에 대해 계속 신뢰를 보여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미국 순방길은 한·미 동맹 60주년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컸다. 5월 6일 워싱턴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들의 묘에 헌화하고 넋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5월 7일 저녁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60년 기념 만찬’에 참석해 “앞으로 한·미 동맹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문화적으로 세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재외동포 지원 간담회’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방문하는 도시마다 동포 간담회를 빠짐없이 갖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동포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순방 첫 일정이 뉴욕 동포 간담회일 정도로 박 대통령은 동포들과 만남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의 ‘재외동포 챙기기’는 새 정부의 경제발전 기조인 ‘창조경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의력을 가진 재외동포 2세나 3세들이 창조경제 육성 과정에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출인 동시에 전 세계의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저녁 워싱턴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이 5월 8일 오전 미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도중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5일 오후 뉴욕 아스토리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욕동포 간담회에서 참석 동포들과 간배하고 있다.

동포간담회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 개로 확대, 재외동포 자녀 한글·역사 교육 등 구체적인 동포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이나 영사 서비스 등 삶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서 대응하는 ‘선제적 맞춤형 지원’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720만 명의 역량을 결집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도 새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재외동포 청년 인재들의 활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영사 서비스 혁신 등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밝혀 동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미국 순방길의 대미는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창조경제 리더’들과의 간담회로 장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벤처인들과 만나 기술, 벤처, 문화 콘텐츠, 인재 유치 등 4개 소주제별로 성공 사례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5월 10일 오후 4박6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



전 세계 한인회장들의 축제 한마당인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웨라튼워커히 호텔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업에 앞장선다”

제14회 세계한인회장대회 6월 18~21일 서울서 열려

‘한인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의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 내·외동포 간 및
한인회장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등을 공
유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해왔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업을 위한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포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의 수장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114개국에 흩어져 있는 700여 개의 한
인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재외
국민 선거제도, 차세대 교육, 권익신장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
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동포리더들의 모임 중 가장 대표적이고 규
모가 큰 대회이다

이번 대회 공동대회의장으로는 재일민단중앙본부 오공태 단장
과 재유럽한인총연합회 박종범 회장이 맡는다. 오공태 단장은 올

2월에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단합과 화합, 발전의 방법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대회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공유

1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대회에는 전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450여 명의 국내외 동포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외에서는 350여 명의 각국의 현직 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하며 국내에서는 외교부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더욱이 최근 굵직굵직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OECD 중심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한인회장들에게 알려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한인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갖는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3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코리아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사업의 업그레이드 현황을 알려 한인회를 통한 동포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국가발전 원동력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한인회장대회를 통해 각국 동포사회의 중심인 한인회가 모국과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유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은 이미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상생(相生)'의 관계이며, 지금은 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이번 대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 공동의장인 박종범 재유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한인사회가 한인회를 중심으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며 "정치력을 신장하고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얼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인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 9개 지역별 한인사회 현안토론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서울에서만 대회를 열고 있다.

박 회장은 "모국과 한인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번 대회에 이뤄지도록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모국과 '상생' 하는 한인회 구축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회도 서울에서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행사의 집중도를 높일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방을 오가는 시간을 줄임으로서 각 지역 한인사회 현안 발표 시간을 늘일 수 있게 되어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됐다.

대회 첫날에는 각 정당별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포럼을 열어 '재외동포 끌어안기'에 대한 당차원의 방침을 소개하고 한인회장들과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모임을 열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지역별 토론 결과를 가지고 전체회의를 열고 회장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장학금 전달식도 가질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한인회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해 전체 회장에게 알리는 시간을 통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인회장대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토의도 열린다.

2009년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를 했다. 재외동포 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240만 명에 달하게 되면서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워크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봉사여행'의 저자로 최근 대학생 강연 초청 1위인 손보미 AA(Asian Arts) 대표를 초청해 봉사를 통한 자아발견과 도전에 대해 봉사 단원에게 특강을 했다.

“차세대 동포의 모국 이해 우리가 앞장서 돕겠습니다”

2기 OKF 대학생자원봉사단 워크숍 후끈한 열기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5월 4일 서울 외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 2기 OKF 대학생자원봉사단' 워크숍을 열어 자원봉사단의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봉사단원 간의 팀워크를 도모했다.

OKF 대학생자원봉사단(Overseas Korean's Friends)은 재외동포재단이 2012년부터 재단 행사 가운데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를 비롯해 동포재단 행사에 국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을 조직해 동포 차세대의 모국 이해 및 교류를 돕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차세대팀 관계자는 “2기로 선발된 자원봉사단은 모국 연수 및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비롯해 모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등을 돕고 있다”며 “여름에 개최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에서 그룹 리더로 활약하며 차세대 동포들의 모국 체험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 초청 장학생 모국 유학 안내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를 돕는 국제 교류 분야,

재단 초청 장학생의 모국 유학생활 정착을 돕는 대학 캠퍼스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을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널리 알리는 활동 등 3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국제 교류 분야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참여를 비롯해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동포 초청행사에서 통역 관련 봉사도 하게 된다.

대학 캠퍼스 활동은 구체적으로 모국 유학을 오는 동포 장학생의 공향 마중을 시작으로, 멘토 및 수강신청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 등을 돕게 된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력이 상승하고 OECD 중심국가로 발돋움하

면서 재외동포 차세대의 모국 유학이 늘어나고 있다.

재단은 이 가운데 우수한 인재들에게 학비 지원 등 모국유학의 기회를 부여해 장차 동포사회와 모국을 잇는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초청 장학생들은 해외에서 살다보니 모국 생활의 모든 것이 낯선 게 사실. OKF 대학생자원봉사단은 같은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생활을 비롯해 휴대폰 개통, 버스노선 익히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특히, 동포 유학생의 도우미를 하면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봉사단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온라인 홍보활동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각종 행사 활동의 사진이나 글 또는 동영상을 알리는 소셜네트워크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월에도 1박2일의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안내하고 팀워크를 불어 넣었다. 2기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민희(성균관대) 단원은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를 비롯해 모국 유학생 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며 “봉사단에 가입해 워크숍을 통해 재외동포사회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 이민의 역사도 다양하지만 한결 같이 한민족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 역량 키우는 청년 멘토 특강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봉사여행’의 저자로 최근 대학생 강연 초청 1위인 손보미 AA(Asian Arts) 대표를 초청해 봉사를 통한 자아발견과 도전에 대해 봉사 단원에게 특강을 했다.

손 대표는 대학시절 5년간 25개국을 여행하고, 6개국 봉사여행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꿈을 향해 나아간 도전의 시간을 봉사 단원에게 소개했다.

그는 봉사 단원에게 “자신의 스펙도 쌓을 겸 조금은 이기적인 봉사여행을 통해 세상과 사람, 그리고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법을 배웠다”며 “꿈을 위해서 일단 뛰어들어야 하고 열정을 자신의 최고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대표는 “지구촌 시민의식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봉사단원의 질문에 “나의 성장과 내가 속한 단체, 지역, 사회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성장을 동일 선상에 놓고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 놓기도 했다.

특강에 이어 봉사단원들은 기획팀과 홍보팀으로 나뉘서 올해



OKF봉사단원들은 기획팀과 홍보팀으로 나뉘서 올해 펼칠 각종 활동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회의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펼칠 각종 활동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단체 카톡, 페이스북을 개설해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초청 장학생의 모국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1대1 멘토제도의 활용과 대학별, 지역별로 정기 모임을 열어 교류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외동포의 경우 현지 국적 소유자도 많고, 1.5세대 있지만 현지에서 태어난 2세의 경우 모국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국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유민 홍보팀장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상시 교류하는 통로를 만들 계획이다”며 “홈페이지에 봉사관련 글과 사진을 올리는 것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단원 중에 재외동포 출신 학생들을 중심으로 초청 장학생에게 자신이 겪은 유학생 생활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온오프 모임을 통해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정영 봉사단장은 “2월에 이어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 봉사단원 간 친밀도가 높아졌다”며 “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원 간의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선은 지역별로 자체 모임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박대통령 재외공관장 간담회 “동포 돕는일 적극 나서라”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1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1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데 우리 재외공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재외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외공관장 회의의 참석차 일시귀국한 공관장 124명과 첫 간담회에서 “각국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역지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신뢰는 서로가 룰과 약속을 지킬 때만 구축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룰과 약속을 어길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세계 각국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 “동북아가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도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나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나 대테러 등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부터 대화를 시작해 신뢰가 쌓이면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한 신뢰구축과 평화통일 기반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성공하려면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방미 과정에서 얻은 좋은 성과가 더 크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재외국민 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720만 명의 재외동포와 15만 명의 유학생들, 그리고 1천300만 명의 해외여행 국민이 날마다 많은 일에 직면하는데 재외공관은 한국의 손님 대접에만 치중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엔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와 주지 않으면 재외공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외공관은 본국의 손님을 맞는 일보다 본연

의 임무에 충실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투철한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방미 중 약속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재외국민들의 한글·역사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해 실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창**

승례문 복구 준공 “새 희망·새 시대의 문 열려”

국보 1호 승례문이 5년 3개월에 걸친 복구를 완료하고 다시 국민 앞에 섰다.

문화재청은 5월 4일 오후 2시 승례문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복구사업 참여 장인, 그리고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8년 2월 10일 화재 이래 진행한 복구사업이 공식 완료됐음을 선언하는 완공식을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승례문은 우리의 민족혼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면서 “승례문의 부활은 단순한 문화재의 복구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되살리고, 새로운 희망의 문, 새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정 기초의 핵심축으로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서 “승례문의 새 문이 활짝 열렸듯이 우리의 문화 자산과 콘텐츠를 인류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은 ‘승례문, 문화의 새 문이 열리다’는 슬로건과 ‘상생’이라는 주제 아래 승례문 현장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오후 6시까지 개최됐다.

연극 연출가 출신 이운택(61) 씨가 총감독한 이번 경축행사는 문화유산의 후손전수를 염원하는 어린이 합창단의 동요합창에 이어 승례문 천도 의식으로 서막을 올렸다.

이어 복구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박 대통령의 축사를 거쳐 승례문 복구 완료를 하늘에 고하는 고천(告天) 공연으로 이어졌다.

복구한 승례문 문을 열어 성 안팎을 연결하는 개문(開門) 의식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직접 개문을 하고,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는가 하면 복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승례문을 지나 사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희망엽서를 담은 희망보감(希望寶鑑)을 이봉(移奉)하



방화로 소실된 지 5년 3개월 만에 복구 작업을 마친 국보 1호 승례문이 5월 4일 일반인에게 개방되자 많은 시민이 몰려 있다.

는 길 님을 행렬이 있었으며, 세종로에서는 자유연희마당을 펼치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판굿, 비나리, 아리랑’ 주제공연이 열렸다.

문화재청은 이날 기념식을 승례문 화재에 따른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하는 국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복구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와 장인, 자원봉사자, 기부자 외에 다문화 가정, 탈북자가족,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끈끈하게 성장한 어린이, 청소년 등 일반 국민이 참석했다.

기념식 이후 승례문은 일반에 공개됐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하되 5월에는 관람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 5월 18일 이후부터는 문루 상부(1층)는 매주 토요일(오전 11시, 오후 1시, 3시)과 일요일(오후 1시, 2시, 3시)에 특별 관람이 가능하게 됐다. 관람신청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20명씩 받고 있다. **창**

캐나다 최초, 한인 남녀 여야 주의원 탄생

41세 스티브 김 · 31세 제인 신 나란히 당선

캐나다 한인사회에 사상 처음으로 남녀 주 의원 2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5월 14일 치러진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총선에서 스티브 김(41·한국명 김형동) BC자유당 후보와 제인 신(31·한국명 신재경) 신민주당(NDP) 후보가 각각 코퀴틀람-메이로드빌, 버나비-로히드 선거구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김 당선자와 신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주 정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인접 선거구에서 나란히 당선돼 캐나다 한인 이민사의 새 기록을 세우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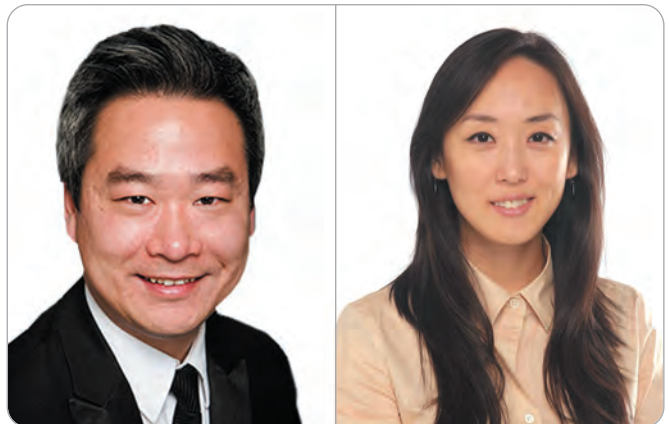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인출신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의원에 이어 캐나다 정치 일선에 본격 진출한 한인 정치인이 3명으로 늘어났다.

김 당선자는 지난 3월 BC자유당의 공천을 받아 정계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선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무명 신인 출신이다.

그러나 이날 개표가 시작되자 시종 엇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펼친 끝에 9천44표를 득표, 경쟁 NDP 후보를 105표 차로 따돌리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지역은 특히 야당인 NDP 강세 지역으로 정평이 난 곳이어서 김 당선자의 당선이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신 당선자도 현역 BC자유당 의원이 사퇴한 지역에서 야당 간판으로 출마를 감행, 7천606표를 얻어 자유당 후보를 523표차



캐나다 한인 사회에 사상 처음으로 남녀 주 의원 2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5월 14일 치러진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총선에서 당선된 스티브 김(왼쪽) 당선자와 제인 신(오른쪽) 당선자.

로 누르고 신승을 거두었다.

두 선거구는 광역 밴쿠버 지역 중 한인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곳으로 선거구 경계도 맞닿아 있어 한인 사회는 여당과 야당 주의원을 나란히 갖게 된 모양새다. 특히 BC자유당이 보수 성향 정당인데 반해 NDP는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으로 꼽혀 흥미가 배가된다.

청년 실업가 출신 스티브 김

김 당선자는 선거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로 마케팅 홍보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실업가이다.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졸업하고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지난 1996년 한국으로 건너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역사회 헌신과 봉사, 기업 정신을 강조해온 그는 한인 1.5세와 2세의 사회 봉사운동 조직인 C3소사이어티를 6년 동안 이끌어왔다.

C3는 마틴 상원의원이 정계 입문 전 교사 시절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한인 청년단체로 마틴 의원의 상원 진출 이후 김 당선자가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코퀴틀람에서 열린 한인 간담회 후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왼쪽 앞 줄 여섯 번째)과 스티브 김 후보(왼쪽 앞줄 네 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뒤를 이어 회장직을 맡았다.

김 당선자와 마틴 의원은 사돈 관계로 알려져 흥미를 더한다.

김 당선자는 “지지해준 유권자에게 감사한다. 유세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나를 선출해준 지역구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봉사와 기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면서 “미래 세대에 기회를 넓혀주는 정치 활동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뱅크버를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 버금가는 태평양 연안의 교역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 출신 제인 신

신 당선자는 현역 대학교수로 의료보건학을 가르치는 학계 출신이다.

BC공대(BCIT)의 보건의료학과 주임교수이자 밴쿠버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출강하는 그는 진보적 가치를 정치에서 실현하고 싶다는 전문직 출신 신진이다.

11세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1.5세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 세포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카리브해 소도시의 세인트루시아 스파르탄 보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사회에 유달리 매력을 느껴오던 그는 캐나다 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건 정치의 역할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계 입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신 당선자는 밴쿠버 인근 버나비 시장으로 NDP의 당내 유력인사인 데릭 코리건의 주목을 받아 당 공천까지 받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진보주의자라고 밝히며 “내가 가진 두 손 중 왼손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거 도중 신 당선자는 10여년 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chinkasauruses: 중국인을 비하하는 chink와 공룡을 뜻하는 단어를 합성한 조어)을 썼던 일이 드러나면서 중국계의 반감을 사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또 박사학위를 UBC에서 취득했다거나 의학박사 출신의 의사로 잘못 알려지는 등 불투명한 전력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이를 견뎌냈다.

신 당선자는 “지역구 유권자와 지지자 덕분에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많이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출발 초기 현 BC자유당 정부가 야당 NDP에 15% 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열세를 보여 정부 교체가 유력했으나 종반 들어 4%포인트까지 지지도를 좁히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 4기 연속 정부를 맡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선거 이번으로 해석하고 있다.

BC자유당은 스티브 김을 주의원 후보로 내세워 한인 유권자 끌어안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셈이다.

선거기간에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은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코퀴틀람 지역구 출마자들과 함께 19일 오전 코퀴틀람에서 한인 기업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클락 주수상은 또 스티브 김 후보를 “새로운 별”로 지칭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라는 추천을 듣자마자 출마 김 후보에 출마를 권유해왔다고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가 “차세대 한인 조직 C3소사이터티를 이끌어왔고 마케팅 회사(보일링포인트 그룹)도 잘 운영해온 인재”라며 첫 한국계 주의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당선이 확정된 두 사람은 주의원으로 BC주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 주의원은 BC주 내 경제, 교육, 의료, 문화, 치안, 주정부의 재무와 세제, 소유 공사(公社), 원주민과 조약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펼치게 된다. **창**

조재용 연합뉴스 밴쿠버 통신원



재외동포재단, LG CNS와 서비스 수준 협약

수준 높은 코리안넷 정보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재외동포 정보서비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5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LG CNS(대표 김대훈)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통합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코리안넷(www.korean.net) 등 정보서비스 수준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단은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SLA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에 적합한 평가지표들과 평가기준을 선정하 바 있으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측정지표에 대한 재정의의를 통해 유지보수 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올해 1월 구축 완료 이후,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재외동포 전문 포털사이트인 ‘코리안넷’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한인회·재외한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정보서비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5월 9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LG CNS와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등 재외동포 단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지원서비스, 재외동포 인물·단체 DB 제공 등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이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들에게 제공하는 코리안넷 정보서비스의 객관적인 수준 측정 등 재외동포 정보서비스의 고품질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공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을 시상하고자 논문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 학위 수여 또는 심사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이다. 또한, 선정된 후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에 게재 및 관련 학술대회에서 요약발표가 가능한 논문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학위논문의 학문적 완성도 ▲정부정책 및 재외동포재단 사업과의 연계성 ▲논문 주제의 시의적절성 등이며, 입상자는 오는 9월 중 통보하고 코리안넷(www.korean.net)에 공지한다.

시상은 최우수논문상(1편)과 우수논문상(4편)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국외 거주자 경우, 재외공관에서 시상식 개최)

응모방법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한국시간 기준)까지 △응모서·지도교수 추천서·학위증명서 △응모논문 원본 2부(우편 제출) 및 PDF(이메일 제출)·요약본(선택사항) 등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된다.

특히, 참가신청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양식은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번 논문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재외동포재단(82-2-3415-0094, nykim@okf.or.kr)으로 하면 된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 조사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 공모전에 국내·외 신진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러 국립극장 첫 동양인 수석 객원 지휘자 노태철 국립오케스트라 이끌고 서울공연 성황



“클래식이 서양음악이라고 해서 동양인이 못할 것도 없다. 국내 연주자들의 수준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다. 한국을 알리는데 문화를 통한 교류만큼 영향력 큰 것도 없다. 클래식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러시아에서 동양인 최초로 파크롭스키 국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인 노태철(50) 씨는 지난 5월 25일 고국을 찾아 예술의 전당에서 아름다운 러시아 음악을 선보였다.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한 그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에프게니 미하일로프와 협연으로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백조의 호수’ 등을 선보였다.

1989년 창단된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세계음악 축제와 순회 연주 등을 통해 기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노태철의 지휘로 한국에서 공연한 바 있다.

CIS를 비롯한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왕성한 지휘활동을 하고 있는 노 씨는 러시아 불고그라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를 비롯해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의 국립전통오케스트라에서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서양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오는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 70개 교향악단과 140개 콘서트

홀에서 500여 회의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동아대 음대를 수석졸업 할 때는 정말 자신만만했다. 그런데 유학으로 오스트리아 뷔르츠 부르그 국립음대에 입학해보니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걸 절감했다. 시험을 위한 공부방식이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밤낮없이 음악에 매달렸고 1994년 헝가리 하이든 챔버 오케스트라를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1997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빈 왈츠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발탁되면서 명실공히 유럽음악계가 인정하는 지휘자 반열에 올라섰다.

헝가리 하이든 음악축제, 베르디 오페라 축제와 캐나다 한스빌 음악축제 등 10여 개의 국제적인 음악축제에서 지휘한 그는 특히 ‘제25주년 모스크바 가을축제(2003)’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하차투리안의 극음악 ‘백베드’와 ‘리어왕’을 세계초연으로 지휘하기도 했다.

또 세계 60여 명의 작곡가와 오케스트라, 솔리스트가 참여한 ‘고리키 현대음악 축제’에서는 예술총감독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해 한국인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동양인 지휘자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예술에서는 무엇보다 실력이 우선이다. 처음에 가진 의구심도 연주곡에 대한 이해와 단원들 실력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보이자 수긍해왔다”며 지금은 단원들과 가족같이 지낸다고 말했다.

노 씨는 “매번 지휘봉을 잡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클래식은 각 나라의 고유한 정서가 녹아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라며 “여러나라에서 지휘를 하다 보니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등을 구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소리를 귀로 듣고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음감이 중요하다. 지휘할 곡을 피아노로 쳐보고 그 곡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세워야 한다”며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적 이론과 시험공부 보다 실기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애니깽 후손의 꿈이 꽃핀 멕시코한인회

멕시코 한인 이민 108주년 기념식 성료

재 멕시코한인회(회장 손정옥)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멕시코 시티 한글학교 강당에서 홍성화 대사, 손정옥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원로들과 각 기관장, 한인후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멕시코 한인 이민 108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열었다.

1905년 멕시코로 건너가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용설란의 일종으로 선박용 밧줄 원료) 농장에서 일했던 한인 1천33명 후손들을 이른바 '애니깽'으로 부르고 있다. 이민 1세대인 이들은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고국에 보낼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멕시코 한인후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멕시코 한인후손 한글학교 학생들의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해 홍성화 대사의 격려사, 손정옥 한인회장의 축사, 앙헬리카 황보 한인후손회장의 기념사와 한인후손회 이사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 홍성화 대사, 손정옥 한인회장, 김무선 다니엘 한인후손한글학교 교장, 양재 한인회 부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고, 한인후손 한글학교 학생들의 아리랑, 고향의 봄, 제창으로 식을 마쳤다.

특히, 아리랑, 고향의 봄을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부를 때는 가슴에 맺힌 한을 노래하듯 분위기가 고조됐고, 계속되는 만찬에서는 흠어져 있던 한인후손들이 서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사진촬영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 참석한 한인들과 후손들의 교류도 한층 두터워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된 3명의 학생 발표도 있어 더욱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1905년 대한제국의 격동기 속에서 군대에서 쫓겨난 광무군(200여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돈을 벌며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조국을 떠났던 1천33명의 멕시코 이민자들은 이역만리 낯선 땅 멕시코 유카탄에 도착해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정말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국민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통해 조국 광복에 이바지했다.

한인회는 이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되고, 후손을 적극적으로 도와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동포로서의 할일이라 생각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한인후손은 4, 5세대에 이르고 있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



지난 5월 16일 오후 멕시코시티 한글학교 강당에서 처음으로 멕시코 한인 이민 108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음은 누구보다 크다. 미국 또는 이웃나라로 흠어진 한인후손들도 있지만 아직도 전 멕시코에 수만 명이 흠어져 살고 있다. 조국, 대한민국은 이들을 잊지 않고 후원하고 있으며 한인후손 청년들 중 조국에 유학하려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1932년 상해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주도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온 세계가 놀라고 특히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돕게 된 계기가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 의거에 필요한 자금을 멕시코 쿠바(애니깽 이민자)동포들이 힘든 노동을 통해 하루하루 모아서 보내온 돈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인회는 매년 애니깽 후손들을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있다.

손정옥 한인회장은 "애니깽 후손들이 조국애를 되살리고 조국을 위해 봉사하려는 꿈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3명의 한인후손 학생들이 재외동포 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자료제공 : 한국방송출판 '바른말 고운말')

숫자의 띄어쓰기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띄어쓰기의 규칙이 상당히 복잡하다. 숫자를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경우와 한글로 쓰는 경우가 있다.

우선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경우, 뒤에 '월'이라든가 '개'와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올 때는 숫자 뒤에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000개' 아라비아 숫자로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 바로 뒤에 '개'를 붙여서 쓰면 된다.

그런데 숫자를 한글로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와 다르다. 전에는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해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숫자 '3,500,007,000,000'을 한글로 쓸 때는 '삼조 오천억 칠백만'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그러면 한글 숫자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할까? 앞서 예를 든 '십만 개'의 경우는 '십만'과 '개' 사이를 띄어 쓰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글로 쓰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일학년, 삼층, 일곱 시' 등과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쓰게 돼 있다.

우리말의 띄어쓰기 규칙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면 차차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딤다'의 활용형

'방아' 종류 가운데 '디딜방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밭을 올려놓고 서거나 내리 누른다는 뜻을 가진 동사 '디디다'에서 나온 말로, 말 그대로 밭을 디더서 곡식을 찧거나 빵게 된 방아를 말한다. '디디다'에서 나온 표현으로 '내디디다'가 있는데, 이것은 앞이나 바깥쪽으로 디딘다는 뜻이다. '디디다'를 줄여서 '딤다'라고도 하니까 '내디디다'는 '내딤다'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활용시켜서 '사회 생활에 첫발을 내딤는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극장 안에 사람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었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큰 걸음을 내딤었다'와 같은 활용형은 어떨까? '내딤었다'라는 것은 바른 활용형이 아니다. 앞의 '첫발을 내딤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예문은 가능한데 '내딤었다'가 안 되는 이유는 '내딤다'가 '내디디다'의 준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말인 '내디디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었다'가 연결될 때는 '내디디었다' 또는 '내디뎠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뒤의 자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도 인정하기 때문에 '내딤고, 내딤는, 내딤지'가 모두 맞는 표현이 된다.

부아가 나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마음 속에서 화가 난다거나 분한 마음이 생긴다고 할 때 어떤 이들은 '부화가 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아가 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화'와 '부아'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이고 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우선 '부아'가 맞는 말인데, '부아'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기관인 '폐'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보통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진다. 그렇게 되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부아가 나다' 또는 '부아가 치밀다'이다. 그리고 '부화'라는 것은 '허파' 즉 '폐'를 가리키는 옛말이다. 화가 난다는 뜻에서 유추해서 '부화가 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표준어로는 '부아가 난다'가 올바른 표현으로 돼 있다. 간혹 '부애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표현이다. **참**



인생 질곡의 몸부림... 탱고의 아르헨

아르헨티나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탱고의 고향'이라는 단어다.

탱고의 발상지인 아르헨티나의 작은 항구마을 '라 보카(Barrio Boca)'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중심지에서 약 5km가량 떨어진 외각,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연결하는 항구에 있다.

이 지역은 탱고의 탄생지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명소이지만 이곳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저 빈민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명한 천재 축구선수 '마라도나'가 처음 축구를 시작한 '보카 주니어 팀'이 이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세기 유럽 이민자들이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빈민층이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인지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라 단체로 관광을 해야 하며 더욱이 밤에는 출입을 삼가 해야 한다.

현재의 푸에르토 마데로 노르테(Puerto Madero Norte) 항이



‘라 보카’ 항구 주변 ‘카미니토(작은 골목이라는 뜻)’의 싸구려 술집은 이민자들에게는 쉼터 같은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탱고’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생기기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일한 항구였던 ‘보카 항구’를 통해 들어온 이민자들로 인하여 ‘라 보카’는 이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여러 종류의 직업과 거친 항해를 마치고 육지에 오른 선원들로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삶의 희망 보다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여들었다.

‘라 보카’ 항구 주변 ‘카미니토(작은 골목이라는 뜻)’ 주변의 싸구려 술집은 이민자들에게는 쉼터 같은 곳이다.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건만 고된 현실에 방황하며 인생의 괴로움을 성토했고, 또한 서로 위로하며 희망을 논하는 장소로 오랜 시간 자리 잡아왔다.

이와 함께 거친 파도에 시달리며 항해를 하였던 선원들과 노동자들이 사랑과 욕망, 좌절과 고통으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이곳

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술집 여인들과 한 바탕 춤을 추던 것에서 유래한 게 ‘탱고(Tango)’다. 탱고는 바로 이런 싸구려 선술집에서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보카’ 뒷골목 선술집에서 노동자와 선원들의 향수와 낭만, 정열, 사랑, 애수 그리고 희망과 절망의 집합적으로 표현하던 몸놀림, 남녀가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몸을 밀착 시킨 채 아슬아슬하게 추던 춤이 탱고다.

이 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격식으로 위장한 욕망에 갈증을 느끼던 유럽과 미국 상류사회를 휩쓸어 버렸다. 탱고의 발상지가 ‘라 보카’ 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무용수와 허리 바로 밑까지 터진 드레스를 입은 관능적인 여자무용수가 다리를 휘감으며 추는 춤은 아무리 섹시하다 한들 처음 어슴푸레한 조명아래 세상을 태워버릴 듯 리듬에 몸을 내 던졌던 그네들의 춤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음악만 있으면 때와 장소에 개의치 않고 춤판이 벌어진다. 저녁에는 시내 곳곳에 있는 탱고 바에서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탱고 쇼가 열리고 주말이면 각 지역의 베흘시장에서조차 여지없이 노천 탱고무대가 빠지질 않는 것이다.

“나는 왜 그렇게 노래하는가!”

그 키스가 부드러워서,
그 칼부림이 격해서,
죽음의 이별이 있어서,
사랑의 단 맛이 있어서,
그리고 나는 탱고가 되었네.
그게 화려하고 강해서 일세.
삶의 조각이 담겨있네
죽음의 조각도 담겨있네.

이 구절은 아르헨티나의 유명가수 켈레도니오 플로레스의 ‘나는 왜 이렇게 노래하는가’의 노랫말이다.

탱고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부둣가에 모여 살던 이민자들과 선원들의 인생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이별을 담은 처절한 감정의 몸부림이었다.

집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눈김이요, 감정이요, 한풀이인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탱고’라고 할 수 있겠다. **창**

이해진 재외동포의창 아르헨티나 통신원



6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덤의 무리다. 이 일대에만 크기가 다양한 고분 230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러 차례 도굴됐던 것을 최근에 복원했다. 주위에는 사과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역사 숨결 어린 한반도의 중원 **충주**

비옥한 땅과 햇빛 좋은 삼국시대 격전지

충주의 옛 지명은 중원(中原)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넓은 들판의 중앙', '경쟁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의미가 실제로 중원이라는 땅에서 기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중원은 이 지방의 역사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단어다.

남한강에 인접한 분지 지형인 충주는 한반도의 가운데에 위치한 탓에, 삼국 시대부터 전략상의 요충지였다. 지리적인 이점만이 아니라, 백제, 고구려의 혈투를 낳은 것은 아니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을 정도로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풍부했던 것

도 한몫을 했다.

충주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충청도 지역을 아우르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충주만큼 유물을 시기별로 잘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없다. 1990년 장마 피해로 인해 조동리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되면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틀을 갖췄다. 따라서 충주에서는 우리나라 선사와 역사의 흔적들을 모두 대면하게 된다. 경주나 부여, 공주를 칭할 때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말하지만, 이 문구는 충주에도 들어맞는다.

청동기 시대의 집터와 각종 토기, 곡물의 씨앗이 발견된 조동리에는 선사유적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빗살무늬토기의 파편과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가라앉도록 매다는 그물 추 등 조상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썼던 도구들이 유리창 너머에 안치돼 있다. 다만 제의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유적인 굽잔토기의 실물이 아닌 모형이 전시돼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면 삼국시대의 자취로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이라 전해지는 탄금대와 고구려왕이 충주를 차지한 것을 기념해 세운 중원고구려비가 있다. 현재 탄금대에는 뚜렷한 유적이 없지만, 시민들과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예쁜 공원이다. 중원고구려비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쳐버릴 만큼 도로변에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는데, 역사적 가치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중양탑’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영토의 한가운데 남겨놓은 예술품이다. 한반도의 중앙에 있어서 ‘중양탑’이라 불린다는 탑평리 칠층석탑은 표면에 따로 새겨진 문양이 거의 없어서 수수하기만 하다. 튼튼한 기단 위에 세워진 탑신은 대칭과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있고 꼭대기에는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관과 비슷한 조각이 놓여 있다. 탑의 형태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다. 아랫부분은 육중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모양새와 각 층마다 살짝 들어 올린 처마가 인상적이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색색의 연등으로 장식된 미륵리 사지에는 석탑과 불상이 어울려 터를 지키고 있었다. 고려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되는 이 절의 탑은 훨씬 전에 만들어진 중양탑에 비해 투박하고 보잘 것 없었다.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감성이 모두 뒤떨어져 보였다. 불상 역시 감탄사를 내뱉게 할 만큼 훌륭하다고 보다는 소박하고 정감이 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조선 인조 때의 명장인 임경업 장군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에서 충주의 역사 여행은 막을 내린다. 친명배척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당시 청을 공격하려 했으나 끝내 과업을 이루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마지막까지 충절을 지켰던 장군과 그의 부인을 위한 사당에 찾아오는 이는 많지 않다. 사당에 입장하려면 대인이든, 소인이든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는 ‘하마비(下馬碑)’만이 외로이 그의 업적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장**



- 1 술의 역사는 우리 역사만큼 장구하고 사연도 무수하다. 충주에 위치한 술박물관 '리퀴리움'은 와인과 맥주를 비롯해 다양한 술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 2 자연적으로 용출한 전국 최초의 온천으로 조선시대 여러 선비들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하 250m에서 나오는 53°C의 약알칼리성 온천으로 다양한 광물질이 함유돼 있다. 한 달 이상 물을 담아두어도 썩지 않으며, 세포의 노화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등에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는 각종 무술 시연과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이종격투기대회와 태국 무에타이와 한국 무에타이, 중국 우슈와 한국 우슈의 대결이 펼쳐진다.
- 4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충주호수축제가 올해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양탑 공원에서 개최된다. 호수축제에서는 드래곤보트 대회, 수상스키 시범 등이 열리고 수상 미끄럼틀, 수상 시소, 수상 걷기 등의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 5 월악산은 충주시와 제천시에 걸쳐 있는 높이 1천97m의 산으로 우람한 산세 때문에 예부터 영산이라 불려왔다. 주봉에 오르면 충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을 찾는 사람이 많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제공)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란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일자, 장소 및 입영 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 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출원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을 얻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복수국적이거나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혹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접수 및 제출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제출 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 신청서, 영주권 사본

■ 2013년도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

- 3월 11일, 5월 13일, 8월 12일, 10월 14일 (해당 입영일자 이외의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입영이 가능함)

■ 병역의무

- 본인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다
-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보직 부여 및 근무지 배치
- 훈련소 입소 후 희망 근무지역(1~3) 파악 후 근무지 배정

■ 신청취소 및 국외여행 보장

- 사정에 의해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독자후기 _ 김철호 미국 LA

4월호에 올해 세계한상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1987년 이민을 오기 전까지 살던 곳이 광주다. 빛고을로 불리는 광주를 동포사회에 모처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 이민 살이의 고됨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것은 고향의 음식이다. 해외에 살아도 전라도 음식이 맛깔스럽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

이다. LA에도 한식당이 제법 많지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많지 않아서 안타깝다. 일본의 초밥이나 우동, 베트남 쌀국수처럼 한식도 세계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올해 한상대회가 남도 음식을 세계로 알리는 기회가 돼서 LA에서도 손쉽게 고향 음식을 먹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HANIN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

2013 World Korean Community Leaders Convention

2013. 6. 18(화) ~ 6. 21(금)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주최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재외동포재단

720만 재외동포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www.korean.net